

자동차/부품

트럼프 대통령, 상호관세 발표

자동차/부품/타이어 담당 문용권 T.02)2004-9175 / moon.yong-kwan@shinyoung.com

미국 시간 4/2 트럼프 대통령, 기본 10%, 국가별 차등 상호관세 발표

미국 시간 4/2,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발표. 기본 세율은 10%(4/5부터 발효)이나 국가별로 차등(4/9부터 발효) 적용. 상호관세가 미국의 황금시대를 불러올 것이라며, 미국에 일자리가 늘어갈 것이라고 밝힘. 미국은 '관대하기 때문에' 교역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의 절반 수준의 상호관세를 부과할 것이라 밝혔는데 주요 교역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은 다음과 같음. 베트남:46%, 태국: 36%, 중국: 34%, 대만: 32%, 인도네시아:32%, 한국: 25%, 일본: 24%, 말레이시아:24%, EU: 20%, 영국:10% 등. 이번 상호관세 대상에서 멕시코, 캐나다는 현재 기준으로 미포함 되었는데, 기존 공언한 멕시코/캐나다에 대한 25% 관세가 중단, 폐지될 경우 상호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을 남겨 둠.

아울러 상호 관세 예외 대상도 밝혔는데 무역 확대법 제232조에 따라 부과되는 추가 관세의 대상이 되는 모든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2025년 3월 26일자 포고문 10908)은 상호 관세에서는 제외됨 (도표 1 참고)

3/26 발표했던 수입차에 대한 25% 관세는 4/3 자정부터 예정대로 시행

* 미국 시간 3/26, 트럼프 대통령은 4월 3일 자정부터 모든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는데, 금일(4/2) 수입차에 대한 25% 관세는 기존 예정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밝힘. 수입 부품은 연방관보에 적용된 시기부터, 단 25년 5월 3일 이전에 부과 시행 예정. 3/26 발표 당시 자동차 부품은 미국-캐나다-멕시코 무역협정(USMCA)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부품은 '일단' 관세 대상에서 면제되었으나, 백악관은 미국 상무부 장관이 미국산 외 부품(non-U.S. content) 관세 기준을 마련할 때까지 USMCA 기준 충족 부품이 관세에서 면제되는 것이라고 밝혔었음.

결국 국내 업체의 미국 생산 확대에 대응 예상, 국내 자동차 생산 감소 우려는 존재

* 2018년 한미FTA 개정 이후, 현대차/기아는 국내 수출을 미국 중심으로 변경했으며, 이는 국내 수출 ASP 상승과 한국 별도 법인의 수익성 향상으로 이어지며 전사 실적 개선을 견인해 왔음

* 2024년 현대차 국내 수출(118만대) 중 미국향은 64만대(비중 54%)이며, 기아 국내 수출 (101만대) 중 미국향은 38만대(비중 38%)이고, 한국GM 수출 중 미국 비중은 88%임. (도표 2 & 3 참고)

* 미국 판매 중 수입산 비중은 현대차 약 68%, 기아 64%로, 미국 시장 평균(50%) 대비 수입차 의존도가 높은 수준이며, 특히 두개 업체의 미국 판매 중 한국산 비중은 현대차 67%, 기아 45%임. (도표 4~6 참고)

* 현대차/기아가 완성차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상호관세 46%), 인도(26%), 인도네시아(32%)는 한국(25%), 또는 수입산 자동차 관세(25%)보다 상호관세율이 높으며, 한국보다 상호관세율이 낮은 EU(20%), 브라질(10%), 터키(10%), 싱가포르(10%) 등에는 미국에서 인기있는 대형 SUV, HEV, Genesis 생산라인이 없기 때문에 미국향 물량을 당장 생산하기도 어려움. 즉, 상호 관세 및 수입차에 대한 관세를 국가별 협상을 통해서 조율하지 않는 한 미국 생산을 늘릴 수 밖에 없는 상황. 단, 관세 회피를 위해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릴수록, 국내 공장의 미국향 수출 감소는 불가피한데, 이는 글로벌 자동차 생산 5위에서 7위로 떨어진 한국 자동차 생산에 타격이 될 수 있음.

* 3/26 발표일 기준으로 수입산 타이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으나(3/29 포고문 발표일 기준 90일 이내에 상무장관은 관세 대상에 추가적인 자동차 부품 품목을 판단하는 절차를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기에 변수 존재). 이번 상호관세를 기준으로 할 때 한국타이어가 공장을 보유한 헝가리(EU 20%)를 제외한 인도네시아(32%), 중국(34%) 상호관세율이 한국(25%) 보다 높아 미국 테네시공장 생산 확대를 예상하며, 미국 공장이 없는 넥센타이어도 체코(EU 20%)를 제외한 중국(34%) 공장이 한국보다 상호관세율이 높음. 금호타이어의 경우도 중국(34%), 베트남(46%)이 한국보다 높은 상호관세를 적용 받게 되어 미국 공장 생산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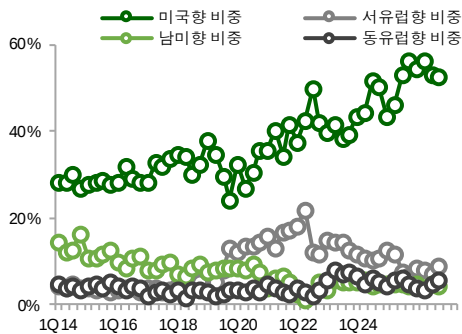
도표 1. 미국이 주요 교역국에 대한 상호관세 & 자동차&부품은 수입 관세(25%) 시행으로 인해 상호관세 대상에서는 제외

Country	Tariffs Charged to the U.S.A. (Including Country-Specific Tariffs and Trade Barriers)	U.S.A. Discounted Reciprocal Tariffs
China	67%	34%
European Union	39%	20%
Vietnam	90%	46%
Taiwan	64%	32%
Japan	46%	24%
India	52%	26%
South Korea	50%	25%
Thailand	72%	36%
Switzerland	61%	31%
Indonesia	64%	32%
Malaysia	47%	24%
Cambodia	97%	49%
United Kingdom	10%	10%
South Africa	60%	30%
Brazil	10%	10%
Bangladesh	74%	37%
Singapore	10%	10%
Israel	33%	17%
Philippines	34%	17%
Chile	10%	10%
Australia	10%	10%
Pakistan	58%	29%
Turkey	10%	10%
Sri Lanka	88%	44%
Colombia	10%	10%

(b) The following goods as set forth in Annex II to this order, consistent with law, shall not be subject to the ad valorem rates of duty under this order: (i) all articles that are encompassed by 50 U.S.C. 1702(b); (ii) all articles and derivatives of steel and aluminum subject to the duties imposed pursuant to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 and proclaimed in Proclamation 9704 of March 8, 2018 (Adjusting Imports of Aluminum Into the United States), as amended, Proclamation 9705 of March 8, 2018 (Adjusting Imports of Steel Into the United States), as amended, and Proclamation 9980 of January 24, 2020 (Adjusting Imports of Derivative Aluminum Articles and Derivative Steel Articles Into the United States), as amended, Proclamation 10895 of February 10, 2025 (Adjusting Imports of Aluminum Into the United States), and Proclamation 10896 of February 10, 2025 (Adjusting Imports of Steel into the United States); (iii) all automobiles and automotive parts subject to the additional duties imposed pursuant to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 as amended, and proclaimed in Proclamation 10908 of March 26, 2025 (Adjusting Imports of Automobiles and Automobile Parts Into the United States); (iv) other products enumerated in Annex II to this order, including copper, pharmaceuticals, semiconductors, lumber articles, certain critical minerals, and energy and energy products; (v) all articles from a trading partner subject to the rates set forth in Column 2 of the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HTSUS); and (vi) all articles that may become subject to duties pursuant to future actions under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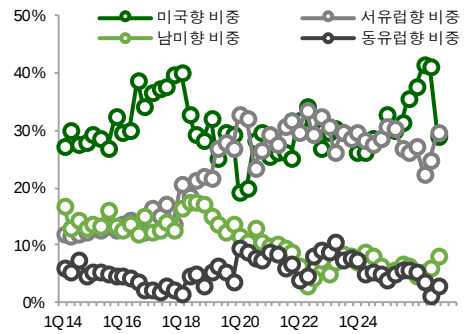
자료 : 백악관,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 현대차 국내 수출 중 지역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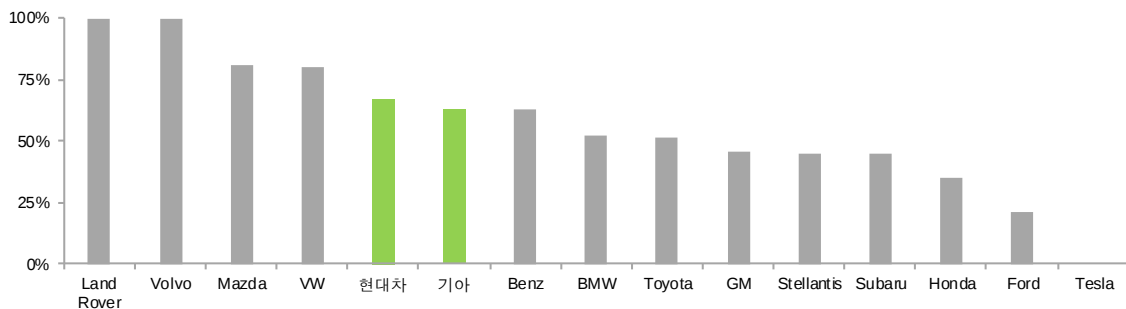
자료 : 현대차,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3. 기아 국내 수출 중 지역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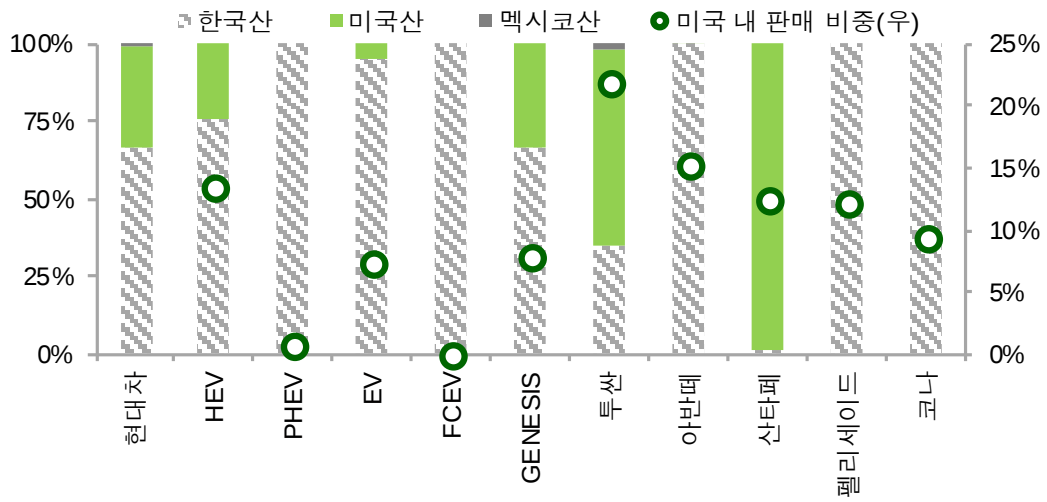
자료 : 기아,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4. 업체별 미국 판매 중 수입산 자동차 비중(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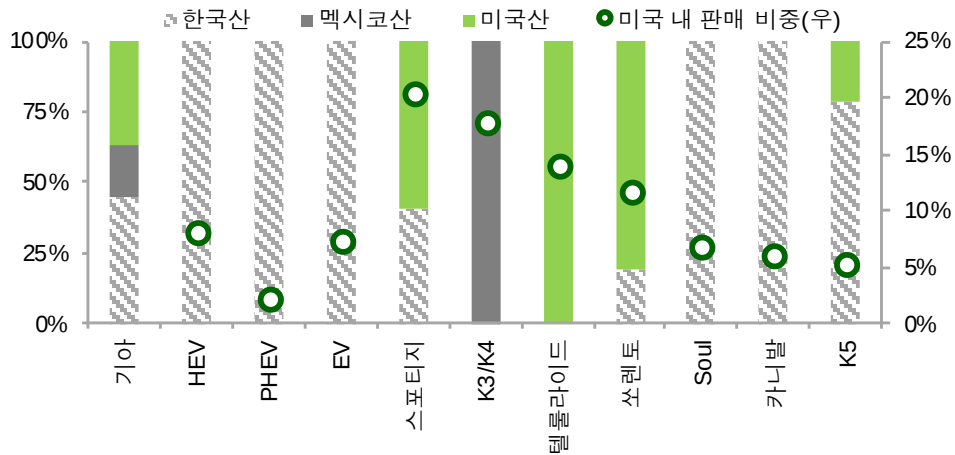
자료 :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5. 현대차 미국 차량 판매 중 원산지 비중: 한국산 67%, 미국산 33%, 멕시코산 0.4%



자료 : 현대차,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6. 기아 미국 차량 판매 중 원산지 비중: 한국산 67%, 미국산 33%, 멕시코산 0.4%



자료 : 기아,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투자등급

종목 매수 : 향후 12개월 동안 추천일 증가대비 목표주가 10% 이상의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종립 : 향후 12개월 동안 추천일 증가대비 $\pm 10\%$ 이내의 등락이 예상되는 경우

매도 : 향후 12개월 동안 추천일 증가대비 목표주가 -10% 이하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산업 비중확대 : 향후 12개월 동안 분석대상 산업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 대비 높게 가져갈 것을 추천

중립 : 향후 12개월 동안 분석대상 산업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과 같게 가져갈 것을 추천

비중축소 : 향후 12개월 동안 분석대상 산업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 대비 낮게 가져갈 것을 추천

-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로, 기관투자자 등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발간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의 계좌로 동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작성 담당자는 자료에 게재된 내용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자료의 괴리율은 감자 등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반영하여 계산하였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소자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당사의 투자 의견 비율 고지]

당사의 투자 의견 비율			
기준일(20250331)	매수 : 87.76%	종립 : 11.56%	매도 : 0.68%

[당사와의 이해관계 고지]

종목명	LP(유동성공급자)	시장조성자			1%이상보유	계열사 관계여부	채무이행보증	자사주신탁 계약
	ELW	주식	주식선물	주식옵션				
기아	-	-	-	-	-	-	-	-
현대차	-	-	-	-	-	-	-	-

